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와 多文化時代의 倫理*

김미영**

〈차 례〉

1. 에코페미니즘과 다문화시대
2. 생태의식에 담긴 다문화시대의 윤리
3.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성향이 다문화시대의 글쓰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생태의식에 담지하고 있는 그의 에코페미니즘적 성향의 작품에서 다문화 시대의 윤리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단편소설과 마찬가지로 그의 장편 소설의 생태학적 상상력은 '돌봄'의 행위를 통한 모성성의 확대, 생명존중의 태도, 폭력적인 문명세계와 대조되는 농원의 공간을 통해 소통의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대상작품은 『깊은 슬픔』(1994), 『바이올렛』(2001), 『리진』(2007), 『엄마를 부탁해』(2008),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10) 등이다. 이러한 작품 속에 나타난 돌봄은 타자윤리를, 생명존중은 대지윤리, 그리고 소통세계의 지향은 차이윤리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윤리는 그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을 비롯한 '생명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있으며, 윤리의 성격은 명확하게 경계선을 긋기 보다는 서로 중첩되거나 보완되는 모습으로 드러난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것임.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

다. 그의 작품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전경화 되지는 않았으나 작품에 나타난 타자 윤리, 대지윤리, 차이윤리는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다문화시대의 윤리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에코페미니즘, 생태의식, 다문화시대 윤리, 신경숙, 타자윤리, 대지윤리, 차이윤리

1. 에코페미니즘과 다문화시대

신경숙의 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주목할 키워드의 하나는 ‘생태의식’ 또는 ‘생태적 사유’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그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고찰하면서¹⁾ 이 의식은 장편소설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경숙의 ‘생태의식’은 일회성의 창작 동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문학적 상상력으로서, 이를 주목하는 것은 그의 작품해석에 긴요하다고 보았다.

이 글은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이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의 자장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와 다문화시대의 윤리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요 균형”²⁾이다. 여기에서 ‘조화’는 지구위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의 삶’을 향유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녀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차이의 존중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여성과 자연의 동질성이라 할 수 있는 ‘억압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해진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중시하는 이론은 “여성적 원리의 회복”³⁾이다. 여성적 원

1) 김미영, 『신경숙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와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2011.9).

2)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민음사, 1998), 410면.

3) 이소영, 정정호, 강규한, 김경한 편역, 『자연, 여성, 환경』(한신문화사, 2000).

리는 ‘생산’, ‘돌봄’, ‘부드러움’ 등⁴⁾으로서 생명이 깃든 모든 것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때로는 돌보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차별화되는 것 중의 하나는 대안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대안적 세계는 이원론, 가치 차등주의, 도구주의 등이 극복된 세계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도 이러한 여성적 원리의 회복⁵⁾을 지향한다. 그의 단편소설에 드러난 모성성의 확대, 생명존중의 태도, 영성⁶⁾ 등의 에코페미니즘의 특성은 장편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의식을 토대로 한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는 소수자, 즉 타자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시대의 글쓰기와 관련이 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가, 민족, 인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다양한 문화가 오버랩되는 상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문화의 대상은 점차 확산되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장애인 등을 비롯한 사회의 소수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현상이 국가 간 민족 간의 이질적인 문화충돌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 편재해 있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삶의 양식 사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소수자의 삶이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충돌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창작과비평사, 2000).

5)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한국문화사, 2000), 13면.

6) 이 글에서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에서 논의하는 영성과는 차이를 둔다.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영성은 대지와 유사한 여성성을 가리킨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 또는 자연 에코페미니스트들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영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사람은 스타호크(Starhawk)와 스프렛낙(Charlene Spretnak)이다. 이들은 땅에 기초한 다양한 영성 행위들로부터 힘을 끌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고대의 여신 숭배나 자연-중심적인 미국 토착민들의 제식에 끌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여성 육체를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자연도 신성하다고 간주하고, 자연의 순환과 리듬들을 존중한다고 믿는다.”(이소영, 정정호, 강규한, 김경한 편역, 앞의 책, 26-28면 참조)

에코페미니즘에서 중시하는 여성과 자연은 다문화사회에서도 주목해야 할 소수자라는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타자와의 문화적 소통 능력이다.⁷⁾ 이것은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룰 신경숙의 장편소설은 『깊은 슬픔』(1994), 『바이올렛』(2001), 『리진』(2007), 『엄마를 부탁해』(2008),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10) 등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나타난 생태의식을 근간으로 하여 배태된 ‘타자윤리’, ‘대지윤리’, ‘차이윤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태의식에 담긴 다문화시대의 윤리

1) ‘돌봄’의 타자윤리

모성성은 에코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페미니즘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중요한 주제이다. 여성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돌봄 또는 보살핌으로 드러나는 타자윤리는 모성성을 근간으로 한다. 에코페미니즘에서 특히 중시하는 ‘돌봄’의 특성은 실천의 주체에 있다. 즉,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에게까지 열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점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구별된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의 특성도 이러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의 ‘돌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또한 돌봄의 대상이 혈연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소수자에게로 향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7) 최인자, 『다문화 시대, 서사문화교육의 방향』, 『서사문화교육의 전망과 실천』(역락, 2008), 38면.

(1) 상처와 다문화사회의 돌봄

『바이올렛』(2001)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전경화 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품 곳곳에 내재한 다문화사회의 윤리를 포착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작중인물들에게 나타나는 ‘돌봄’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오산이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할 인물은 바로 수애의 삼촌, 농원 주인이다. 그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농원 주인’, 또는 ‘화원 주인’으로만 불린다. 그는 남자이면서도 타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모성성’과 동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신경숙의 에코페미니즘적 소설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부분을 그를 통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페미니즘이 가부장제하의 남성적 권위와 폭력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 신경숙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 그의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는 남성주체에게도 여성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작중인물 수애 삼촌과 그의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에 설정된 독특한 공간을 고려할 때 수애 삼촌이 활동하는 구과밭의 농원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이다. 그곳은 온갖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는 곳이며, 상처입은 고양이가 새끼를 낳기 위해 거주하는 곳이며,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장소이다. 즉, 인간과 식물, 동물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공존하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농원을 이러한 낙원으로 유지한 데에는 수애 삼촌의 ‘돌봄’의 타자윤리가 크게 작용한다.

수애 삼촌은 고양이 된 조카 수애를 정성껏 돌보고, 떠돌이 고양이가 편안히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타자에 대한 ‘돌봄’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그에게 인간적인 상처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 결함은 그의 정체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필답에 의한 소통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그의 ‘말’이 되고자 하는 인물들

이 있어 그를 행복한 인물로 형상화한다. 농원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여 그의 농원을 떠나지 않거나,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외국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농장 주인의 타자윤리에 감화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보여준 ‘돌봄’의 타자윤리가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다문화사회에서 숙고해 볼 부분이다.

수애가 농원 입구에 서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부르자 햇볕에 그을린 곱슬머리의 남자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수애 쪽을 쳐다본다. 그 중 여자가 반갑게 수애를 향해 달려와 수애를 껴안는다. 다갈색 눈동자가 순하다. 헤니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여자에게 수애는 박카스를 내민다.⁸⁾

수애는 농원에 들어가기 전에 외국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박카스를 샀다. 그녀의 행위는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잘 드러난다. 이러한 ‘돌봄’은 삼촌에게서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 삼촌이 베푸는 행위는 아주 작은 것으로 드러난다. “사람 수보다 냉면 숫자가 두 그릇 더 많다.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먹으라는 농원 주인 남자의 배려다.”(142면)와 같은 내용에서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지 알 수 있다. 고용주인 수애 삼촌은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리진』(2007)에서도 ‘보살핌’의 타자윤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개화기 시대, 다문화적 체험을 누구보다 먼저 체험한 조선 말기 궁녀 ‘리진’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리진’은 궁녀의 신분에서 프랑스 대사관의 아내가 되어 유럽에 입성한 인물이다. 리진 이외에도 개화기시대의 다문화적 체험을 선취한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리진과 홍종우, 역으로는 조선에 처음 체류한 프랑스 대사관 등이다. 이들의 다문화적 체험은 이국 땅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8) 신경숙, 『바이올렛』(문학동네, 2001), 127면. 이후의 인용은 인용문의 면수만 기재함.

비롯된 것이다.)⁹⁾ 여기에 또 한명 추가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고아인 리진을 키워준 서씨부인이다. 그간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리진과 중전의 모성관계에 집중된 면이 있어 서씨에 대한 언급은 드문 편이었다.

서씨는 사실 외국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문화적 체험에서 ‘돌봄’의 타자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킨 인물로 보는 것은 그녀의 독특한 경력 때문이다. 서씨는 조선땅을 벗어난 적은 없으나 서책과 종교를 통해 일찍부터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녔다. 그녀는 역관의 딸이었기에 중국에서 들여온 서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다. 불임여성이라는 이유로 시가와 친가로부터 소외받은 인물이지만 기존의 세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서책의 세계’에서 물려받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것이다. 여기에 천주교 귀의라는 종교적 힘도 그녀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녀는 중국 서책을 통해 신문명을 알 수 있었고, 천주교라는 종교를 통해 서양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없앨 수 있었다.

서씨의 ‘돌봄’의 행위는 리진이 고아가 되었을 때 그녀를 거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후 떠돌이 고아 강연이 불량 선교사와 왔을 때에 그를 기꺼이 거두어들이고, 중국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희사하여 조선에서는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는 사실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다. 이런 점들이 그녀를 개화기 초기에 나타난 다문화적 체험에서 ‘타자윤리’를 실천한 인물로 보도록 하였다.

『리진』에 나타난 타자윤리는 목욕모티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타자와의 ‘마주 대함’은 신체적 ‘가까움’을 전제로 한다.¹⁰⁾ 신경숙 소설에서 신체적 가까움은 대체로 ‘목욕 모티프’로 형상화되었다. 그는 돌봄의 구체적 행동을 주로 정성을 들인 음식을 베푸는 것과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는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목욕모티프는 신경숙이 즐겨 사용하는 반복 모티프¹¹⁾이다.

9) 김미영, 『《리진》에 나타난 동아시아 근대의 다문화적 체험』, 『한국언어문화』 Vol.45(2011).

10) 최인자,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 제22호(2009), 289면.

서씨의 마음속으로 소년에 대한 연민이 웅덩이의 물처럼 고여들었다.

- 눈을 꼭 감아라.

소년의 몸에 붙어 있는 때가 불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씨는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질해 가지런히 모았다. 녹두가루를 등에 묻혀 싹싹 비벼주었다. 두피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가만가만 긁어주었다. 물 속의 소년은 아무런 저항 없이 서씨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소년이 긴장을 풀지 않자 머리를 비벼주던 서씨가 슬쩍 소년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간지럼을 태웠다.¹²⁾

자신의 몸에 생명의 기운을 가져보지 못한 서씨에게 ‘목욕시키기’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행동은 출산의 경험이 없는 그녀에게 여성적 원리의 ‘돌봄’을 본능적으로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목욕’은 타자의 얼굴 마주대하기를 넘어 온몸과 대면하는 행위이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정도가 극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높이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강연 또한 『바이올렛』의 수애 삼촌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다. 그래서 필담으로 소통을 한다. 수애 삼촌이 식물을 통해 여러 타자들과 소통하듯이 강연은 피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소통은 언어적, 논리적 이해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이 없어도 가능한 것임을 두 사람은 보여주고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는 가난한 자이며 ‘과부이고 고아’¹³⁾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약자의 위치’이자 상처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타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인물이 늘 우월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애 삼촌과 강연의 언어 장애,

11) 신경숙의 작품을 주의 깊게 보아왔다면 몇몇의 반복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욕 모티프, 새 모티프, 신발 또는 발 모티프, 짐승의 매장 모티프 등이 그러하다. 이 글에서 살펴볼게 될 장편들에서도 예외 없이 이러한 모티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2) 신경숙, 『리진』 1권(문학동네, 2007), 66~67면. 이후의 인용은 인용문의 면수만 기재함.

13) 에미누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민음사, 2003), 161면.

그리고 서씨부인의 불임은 그들에게 상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치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치유는 일방향이 아니라 소통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 확장된 ‘돌봄’의 행위

『엄마를 부탁해』도 타자윤리로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울 나들이 중에 잃어버린 엄마 ‘박소녀’를 찾는 과정을 담고 있다. 행방불명된 엄마를 찾는 과정을 딸, 아들, 남편, 그리고 엄마 자신이 화자가 되어 보여주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엄마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 엄마 ‘박소녀’는 자식에게 돌봄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어린 시동생, 오랫동안 만나온 친구 이씨, 동네의 고아남매, 보육원의 고아들에게까지도 돌봄을 확장한다.

엄마에게도 남자 친구가 있다는 설정은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친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기에도 엄마의 모성성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엄마는 4남매의 양식인 밀가루를 사오는 길에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낯선 남자를 만나고, 그에게 밀가루를 모두 도난당한다. 그 절도범이 바로 나중에 엄마의 친구가 된 ‘이은규’이다. 엄마의 타자에 대한 돌봄은 이씨가 처한 곤경, 즉 아내의 해산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처지를 맞닥뜨리자 바로 드러났다. 엄마는 산파노릇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주는 계기로 이은규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간직하게 되었다. 신경숙이 그려내는 엄마의 모습은 이처럼 자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타자들에게로 열려 있다. 엄마는 강인하면서도 한편 타자의 이픔을 가슴으로 수용하는 ‘돌봄’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타자윤리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엄마를 돌봐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엄마와 함께 『리진』의 서씨 부인의 모성성은 사회적으로 확장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서씨의 ‘고아원’ 운영은 당시의 조선사회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양식이다. 이와 같은 선구적 사회시설을 서씨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성성과

천주교 신자로서의 행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천주교 신자로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외국종교를 수용하고 실천한 것으로서 다문화적 체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성성이 혈연으로 집중될 때는 신화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가족이기주의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연민, 돌봄으로 확장되는 모성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수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실천을 보여주는 다문화 시대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

2) 생명존중의 대지윤리

신경숙의 소설에는 식물성, 동물성의 이미지가 유난히 자주,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하게 그려져 있다. 작품마다 애정을 쏟는 동식물의 대상들이 늘 등장하는 것이다. 『깊은 슬픔』에서는 ‘화연’이라는 이름의 개, 산짐승, 『기차는 7시에 떠나네』에서는 개, 닭, 시슴 등이, 『바이올렛』에서는 미나리, 바이올렛, 회색 고양이, 농원의 아열대 식물들이,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새와 감나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서는 백합꽃, 아기참새, 꽃사과나무, 소나무 등이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열거하기에도 벅찬 동식물은 단순하게는 작중인물들과 동고동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를 강화하는 주요 모티프로 작용한다. 장편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동식물의 이미지는 공동체의식을 상기시키고 있다. 동식물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공동의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대지 위에 생존하는 공동의 생명체라는 생태의식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존중의 대지윤리와 연결된다.

(1) 동식물 이미지와 공동체의식

신경숙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는 ‘태생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고향이라는 단어보다 ‘胎生地’에서 울려나오는 어감은 고정불변의 장소라는 의미가 강하다. 태생지는 대체가능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태생지에서 비롯

한 생태적 상상력은 ‘땅’의 의미와 분리할 수 없다.¹⁴⁾ 인간과 동물이 대지 위에서 공생하는 생물체적 시민, 즉 공동체인식이 그의 작품에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땅, 흙에 대해서 친밀감을 지니고 있는 신경숙의 생태적 사유는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1886~1948)의 철학에 닿아 있다. 레오폴드는 특히 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땅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태학적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당시 발전하기 시작한 생태학을 바탕으로 ‘대지윤리(land ethic)’라는 생태중심의 윤리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생태학적 이해를 통해 인간 역시 ‘대지 공동체의 생물체적 시민’이라는 점을 공론화하고자¹⁵⁾ 했던 것이다. 신경숙의 생태의식을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1994년에 발표한 신경숙의 첫 장편소설 『깊은 슬픔』에서부터 이러한 생태의식은 드러나고 있다. 은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생명존중 사상이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에서 중시한 공동체의식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서는 자살하기 직전에 친정 집에 들르고, 이때 어머니와 함께 겨울산에 오른다. 어머니는 바구니 가득히 여러 곡식남알과 고구마 자른 것 등을 담아 와서 눈 덮인 산에 뿌린다. 산새들의 먹이인 것이다.

이렇게 겨울 내내 똑같은 발자국에 다시 발자국을 대며 저 바가지를 들고 산을 오르내렸는가, 아침마다. 은서는 어머니 뒤에 서서 어머니 발자국에 그대로 신발을 대고 걸었다. 어머니는 아직 눈이 쌓인 산의 사방에 바가지에 있는 것을 나눠 뿌렸다. 멀리, 될 수 있으면 멀리까지 퍼지라고 어머니는 팔에 힘을 주었다. 눈발에 고구마 떨어지는 소리, 쌀이 흩뿌려지는 소리, 그 소리의 어느 틈, 차가운 새벽빛 속에서 어머니가 은서를 돌아다봤다.¹⁶⁾

14) 김미영, 『신경숙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와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2011.9).

15) 윤혜진, 『알도 레오폴드 ‘대지윤리’의 철학적 기초』, 『범한철학』 제46집(2007. 가을), 2009, 195~196면.

16) 신경숙, 『깊은 슬픔』 하(문학동네, 1994), 248면.

겨울은 대지에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개체들을 ‘공동체’로 묶어준다. 겨울의 속성은 나약한 산짐승과 나무들에게 생명보존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계절이다. 어머니가 산짐승에게 먹이를 나누어주는 태도는 알도 레오폴드가 말한 ‘대지 윤리’를 실천한 것이다. 어머니의 내면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충만해 있다.

며칠 전에 네 집 모과나무 밑에 까치가 앉아서 떨고 있는 걸 보고 배가 고프겠지, 싶어 너는 집으로 들어가 아이가 먹다 남긴 빵을 부스러뜨려 모과나무 밑에 뿌려주었제. 그때도 너는 이 에미 생각을 했어. 겨울철이면 앙상한 감나무에 앉은 새들 먹으라고 묵은쌀을 한 뒷박 퍼와 감나무 아래에 뿌려주던 나를. (『엄마를 부탁해』, 203면)

『엄마를 부탁해』에서 막내딸과 어머니의 행위도 은서 어머니의 행동과 동일하다. 이것은 작가의식이 그만큼 공동체의식, 생명존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서로 다른 작품이면서도 동일한 이미지로 드러나는 이런 대목은 작가의 생태의식을 보여주는 주요한 예가 된다.

이런 작중인물의 성향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서는 윤교수와 윤, 명서를 통해서 표현된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엔 사람이 오고간 흔적이 없었다. 윤과 나는 눈에 폭폭 빠지며 윤교수를 뒤따르기만 했다. 우리는 곧 소나무 숲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쌓인 산엔 소나무뿐 아니라 키가 일정하지 않은 나무들이 뺏뺏했다. 앞서 걷던 윤교수가 걸음을 멈춘 곳은 노송들이 들어찬 숲이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어둠 속에서 흰 눈에 덮인 노송들이 사람들처럼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아름다워서 저절로 끊어지려 했다. 윤교수가 바닥에 닿아 있는 나뭇가지 위의 눈을 밀어냈다. 윤이 눈 쌓인 아름다드리 노송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눈을 털어주게. 여기서 겨울을 지내보니 이 상태에서 내일 또 눈이 내리면 이 나뭇가지들이 견디지 못하고 푹푹 부러질 거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자네들과 내가 눈을 털어주세.¹⁷⁾

눈 덮인 겨울은 식물들에게도 수난의 계절임이 이 작품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다. 동물에게는 식량부족, 나무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극한의 계절인 것이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 생명체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남성 주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앞서 『바이올렛』에서 언급하였듯이 신경숙은 남성인물에게 억압당하는 여성주체를 그리는데 심혈을 쏟지는 않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돌봄의 모성성을 실천했듯이,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남성 주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또한 소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의 요구와도 상통한다.

(2) 생명의 존중과 생명의 번성력

생명의 존중을 넘어 아예 여신처럼 생명을 길러내는 탁월한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은 『엄마를 부탁해』이다. 어머니 ‘박소녀’는 ‘생명을 길러내는’ 여성이다. 대지의 여신처럼 그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병아리, 강아지, 돼지 등과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비함을 지니고 있다.

아내의 손은 무엇이든 다 살려내는 기술을 가졌다. 원래 이 집은 짐승이 잘되지 않았다. 아내가 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개를 얻어다 기르면 새끼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나갔다.(중략) 이 집은 개는 안 된다고 당신의 누님이 일렸으나 아내는 다른 집에서 막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를 눈을 가린 채 데려왔다. 아내는 개는 머리가 좋아서 데려올 적에 눈을 가라지 않으면 제 어미 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리 데려온 강아지는 마루 밑에서 아내가 주는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를 다섯 배 여섯 배나 낳았다. 마루 밑에 열여덟 마리의 강아지들이 우글거리며 산 적도 있었다. (『엄마를 부탁해』, 161면)

17)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문학동네, 2011), 342면.

남편에게 아내는 자신의 집 내력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 인물로 기억된다. 바로 그녀의 ‘생명’을 가꾸어 내는 능력 때문이다. 남편이 화자로 등장하는 3장에서 특히 이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내에게는 주술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신비한 생명의 기술이 있다. 아내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식물, 동물들은 모두 번성하는 것이다. ‘아내의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 풍성하게 자라났다.’ 라든가 ‘아내의 손길이 스치는 곳은 곧 비옥해지고 무엇이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161면)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는 다산의 여왕처럼 생명체의 번식을 가져왔다.

어머니의 모성성을 계승하고 있는 인물은 막내딸이다. 아이들을 셋씩이나 키우는 막내딸은 약사로서의 전문인보다는 생활에 바쁜 엄마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막내딸이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의 생명존중,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언니. 나는 어제야 등에 아이를 업고 택시를 타고 서오릉 어디개로 가서 계분을 사왔어. 엄마가 저기라고 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감나무를 옮겨심었어. 엄마에게 받아놓은 어린 감나무를 담벼락에 붙여 심어놓고도 일절 반성이 없었는데 옮겨 심다가 깜짝 놀랐네. 나무를 가져왔을 때 뿌리가 어찌나 시원찮던지, 이게 땅속에서 뿌리를 뺏거나 할까 미심쩍어 자꾸만 들여다봤는데 옮겨심으려고 보니 벌써 땅속 깊이 뿌리를 쑥 뻗은 채 엉켜붙어 있었지. 척박한 땅인데도 살아보려고 기를 쓰고 자리를 잡은 생명력이 놀랍기만 했어. (『엄마를 부탁해』, 259~260면)

막내딸은 이사할 때 어머니가 챙겨준 감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는 감나무를 볼 때마다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옮기라고 부탁했었다. 막내딸은 엄마의 부재 속에서 감나무의 자리를 옮기며 감나무의 생명력에 놀라워한다. 감나무의 생명력은 바로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원리는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나타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남성주체들도 모성, 돌봄, 생명존중을 동일하게 실천하

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가 동반자가 되어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를 신경숙은 장편 속에서 수차례 드러내고 있다.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막내딸의 어린 아들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서는 명서와 윤교수가 된다. 생명 존중의 생태학적 인식, 우리는 동물의 매장 모티프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다가 네가 문득 창 바깥을 본다. 모과나무에 앉아 있는 나를 본다. 내 눈과 네 눈이 마주친다. 네가 웅얼거리네.

- 처음 보는 새네.

너의 세 아이 모두 네 시선을 따라간다.

(중략)

너희는 대문 앞에 죽어 있던 새를 이 모과나무 밑에 묻었재. 첫째가 땅을 팔 때 둘째가 나무십자가를 만들었어, 천방지축 셋째는 양양거리고, 네가 새를 집어 날개를 잡고 첫째가 판 땅 속에 밀어넣을 때 둘째가 아멘! 그랬어. (『엄마를 부탁해』, 211면)

신경숙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 중의 하나인 동물 장례식 장면이다. 그는 작중인물들이 동물의 죽음을 슬퍼하며 매장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 작품에서는 새의 매장, 『기차는 7시에 떠나네』에서는 개의 장례식 장면으로 그려졌다. 『엄마를 부탁해』에서 막내딸의 ‘어린 아들’이 죽은 새를 매장하는 내용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어린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성의 원리가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 남성에게도 존재한다는 점은 페미니즘에서 드러난 남녀관계의 대립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서 명서는 소년 시절부터 내장되어 있던 생태학적 의식을 새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내 손에 쥐여진 어린 참새는 놀라서 파닥거리지도 못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 어쩌나 따뜻하고 보드랍던지. 나는 참새가 날아갈까봐 슬땀 주머니에 넣었어. 손을 집어넣어 주머니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참새를 가만가만 만져봤지. 손 끝에 닿는 참새의 새털 감촉이랑 체온이 정말 좋았어. 아마도 내가 살아 있는 것들 중의 어린 것을

그렇게 만져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걸. 내 작은 주머니에 꾸물거리는 생명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 온 세상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았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155면)

소년 명서가 형들과 함께 참새를 잡고 놀다가 체험했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그의 성장과 함께 성숙해진다. 이와 같은 생명존중에 대한 태도는 백합꽃을 키우는 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명서는 미루가 지하 단칸방을 구할 때, 마당에다 백합구근을 많이 심어 주어서 그녀에게 생명의 현장을 가까이 있게 한다.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생명존중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생명체에 대한 ‘사랑’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동식물에 대한 사랑, 생명 있는 것에 대한 사랑.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대지윤리의 초점은 인간이 대지 혹은 자연이라는 공동체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이런 관점, 소위 전체론적 입장은 자연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없고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주요한 부분이며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도 인간과 인간의 환경의 주요한 부분들이라고 주장한다.¹⁸⁾ 인간중심이 아닌, 생명을 간직한 모든 유기체는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은 생명에 대한 평등,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소통지향의 차이윤리

『바이올렛』에서도 신경숙 특유의 생태학적 상상력은 펼쳐진다. 그러나 이 작품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작품들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바이올렛』이 다른 작

18) 김원중, 「대지윤리의 안과 밖: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 신문수 엮음,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42~143면.

품들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남성 작중인물의 폭력성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작품의 주요 인물 중의 한명인 농원의 주인은 예외적 인물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장편들에서 남성들은 대체로 선량한 인물들이었다. 다른 페미니스트 작가와 신경숙을 변별시키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이점이라고 앞서도 밝혔다. 일반적인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가부장제에서 남성의 폭력과 억압에 훼손당한 여성의 삶¹⁹⁾을 그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신경숙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숙 소설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첨예한 대립은 드물다²⁰⁾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이올렛』은 수애 삼촌을 제외한 주요 남성인물들이 모두 폭력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은 문명의 세계, 도시성 등과 관련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신경숙의 생태의식을 좇아가면서 이 작품을 읽을 경우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대조적인 두 공간의 설정과 이와 대비되는 낙원의 설정이다. 즉 문명 세계, 또는 도시의 폭력적인 공간과 자연을 근간으로 하는 낙원동산의 공간이 상당히 대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대조가 다문화 사회의 윤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농촌 공간의 배타적 문화

주인공 오산이의 고향은 철저히 이원화된 곳으로서 ‘동질윤리’가 지배하는 장소이다. 동질윤리는 동질성과 수직적 위계질서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하여 작동된다. 동질성은 가부장적인 수직적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대화부재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닌다.²¹⁾ 오산이가 태어난 고향은 이씨 문중의 집성촌과 타성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씨 문중들은 안마을에, 타성반이는 새터에 거주하는데

19) 일례를 든다면, 신경숙과 같은 연배인 공선옥의 생태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작품만 보더라도 그의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는 남성은 안타고니스트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김미영,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현대문학이론연구』(2005) 참조).

20) 이재복, 『신경숙 소설의 미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21집(2002).

21) 최성식, 『“동질윤리”를 넘어 “차이윤리”로』, 『철학연구』 제106집(2008.5), 321~330면 참조.

이 규칙은 지금껏 변하지 않았다. 문중이라든가 집성촌이라는 문화 양식은 차별과 배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여기에서 배제된 공간의 인물에게는 상처가 남는 법이다.

문화적 차이란 개념은, 전적으로 폐쇄적인 경계를 갖는 상이한 문화 집단들을 설정하고 그 무한한 다양성 중의 어느 한 가지에 소속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문화 간의 경계를 강화할 수 있다.²²⁾ 문중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오산이는 이미 체득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이는가 붙이지 않는가의 구분에서 그러하다. 이런 체득에는 배제된 자의 고독감, 소외감이 배태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배타적 고향에서 오산이에게 긍정적으로 남아 있는 장소는 미나리 군락지이다.

마을의 남쪽 도랑 둑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건 야생 미나리 군락지이다.

푸른 미나리 군락지는 외부를 향해서 폐쇄적인 것만 같은 이 마을의 이미지를 걷어간다. 어찌면 마을보다 더 먼저 생겼을지도 모를 야생 미나리 군락지는 드넓다. 봄이 되어 야생 미나리가 진흙 속에서 푸른 줄기를 돋워내기 시작하면 마을은 마치 초원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다. 칠팔월에 흰 꽃이 필 무렵까지 미나리지는 단조로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이 되곤 한다. 미나리가 살이 쥘 무렵이면 타지 사람들도 장화를 신고 마을로 건너와 미나리 줄기를 꺾어 간다. 간혹 거머리가 붙어 있어도 사람들은 즐거이 미나리를 꺾어 간다. 초과일이 되면 인근의 절에서도 절식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로 사람이 내려와 미나리를 뜯어간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첫돌을 맞이한 아이들의 돌상에 이 군락지의 미나리는 수명이 길라는 뜻을 품고 길게 데쳐져서 오른다. (중략) 어머니와 할머니가 싸우는 날 남애를 만나지 못하면 어린 그녀는 푸른 미나리 군락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놓는다. 미나리가 지고 늘만 남아 있을 때도 종종 거기 둑 위에 혼자 앉아 있는 어린 그녀가 눈에 띈다. (『바이올렛』, 12~13면)

22)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한울, 2007), 114면.

미나리 군락지는 오산이에게 가장 ‘친밀한 장소’로서 남애와의 추억이 심화된 ‘장소감(sense of place)²³⁾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향은 친숙함과 편안함, 양육과 안전의 보장, 소리와 냄새에 대한 기억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공동의 활동과 편안한 즐거움에 대한 기억을 환기²⁴⁾하는 장소이다. 지금까지 신경숙이 그려온 고향의 이미지도 이푸 투안의 지적처럼 정감어린 기록의 저장고²⁵⁾이며 현재에 영감을 주는 장소이다.

그런데 『바이올렛』에서는 이런 고향의 이미지와 거리가 있다. 오산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유기당했다고 할 수 있다. 엄마는 딸의 출산 후, 고개를 돌려버렸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정마저 모두 용인할 것처럼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했으나 오산이가 태어난 이후 집으로 오지 않았다.

고향에서 오산이 모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집까지 모두 빼앗겨 마을에서 셋방살이를 해야 했다. 바슐라르의 지적처럼 집이 없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흩어지는 존재²⁶⁾이다. 고향의 땅, 들판은 ‘고향’이면서도 근원적인 믿음의 ‘집’으로서 인물들의 총체적인 존재감과 정체성이 관련된 의미 있는 장소이다.²⁷⁾ 그러나 오산이에게 그러한 집이 있는 장소로서의 고향은 남아 있지 않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고향은 그나마 미나리 군락지 때문에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생배경부터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는 오산에게 고향은 다문화사회의 소수자들이 체험하는 차별과 소외를 느끼도록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2) 도시공간의 폭력성

오산이가 도시로 나와 거주하는 공간은 ‘길다란 방’으로서 미나리 군락지와 대조적이다. 작품에서 오산이의 방이 네모반듯하지 않고 ‘길다란 방’이라는 표

23)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대운, 1995).

24) 이-푸 투안, 앞의 책(1995), 255면.

25) 이-푸 투안, 앞의 책(1995), 233면.

26) 가스통 바슐라르, 『空間의 詩學』, 광광수 옮김(민음사, 1990).

27)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논형, 2005), 98~99면.

현은 수차례 언급된다. 이 공간은 ‘남근적 상징물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곧바로 노출’²⁸⁾된 오산이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나리 군락지의 이미지가 수평적이고, 늘 물이 고여있는 속성을 고려할 때 여성적 이미지로서, 어머니의 세계라 한다면 ‘길다란 방’은 ‘아버지의 세계’이며, 문명과 폭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녀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은 폭력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와 세 딸들에게 고성과 폭력을 일삼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준다. 신경숙 소설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산이에게 고향이 이씨 문중과 타성으로서 ‘차별’을 알려 주었다면 주인 남자의 폭력은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된다. 결국 주인 여자는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다. 주인 남자의 폭력성은 이제 오산이에게 다가올 폭력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오산이에게 정신적 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한 인물, 또는 육체적 폭력을 행하려고 유인했던 인물들을 차례대로 보면 사진기자, 최현리, 경찰관 등이다. 작가는 그들의 외양이나 그들의 소유물이 문명적이고 도시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진기자는 이름없이 ‘사진기자’로만 끝까지 불리는데 그에게는 현대문명의 기기라 할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 그리고 최현리는 여름날에도 깨끗한 모시 와이셔츠를 입고, 만년필을 사용하는 도시의 사무원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인물이다.

사진기자는 오산이에게 ‘사랑’의 희망과 삶의 절망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화원에 바이올렛을 찍으러 왔으나 정작 바이올렛의 아름다움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오산이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찍었던 인물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고백했으면서도 정작 오산이가 그를 찾아갔을 때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는 오산이에게 정신적 폭력이 되며, 결국은 오산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 이유가 된다.

28) 신수정, 『다시, 씌어지는 이야기』, 『바이올렛』 해설(문학동네, 2010), 294면.

사진기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오산이의 소박한 소망은 ‘바이올렛’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오산이는 남자가 근무하는 빌딩이 바라다 보이는 빈터를 일구고 그 자리에 바이올렛을 심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진기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사진기자가 바이올렛을 찍으면서 꽃으로서의 바이올렛을 무시한 것은 오산이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많은 꽃들 중에서 바이올렛을 폄하하는 사진기자의 태도는 바이올렛이 다른 꽃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것, 즉 ‘차이’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것으로서 오산이의 ‘다름’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산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사진기자를 만난 이후 삶의 모든 희망을 잃는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찾아간 최현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그녀를 폭행하는 최현리는 “난 죄 없어. 내가 말 못 하는 걸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것뿐이야”(269면)라며 자신의 행동마저 합리화한다. 남성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폭행을 당한 후 오산이가 찾아간 곳은 사진기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바이올렛을 심었던 미술관 앞 공터이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땅을 파헤친 포크레인이 그녀가 일구어놓은 꽃밭 자리에 포만한 짐승처럼”(271면) 서 있을 뿐이다.

그녀, 힘껏 손톱으로 포크레인 몸체를 긁어본다. 포크레인은 굽혀지지 않는다. 열 손톱을 세우고 긁어대나 포크레인은 완강하고 그녀의 손톱만 부서져 달아난다. 그녀가 이제 두 주먹을 쥐고 포크레인을 내리친다. 그녀의 손마디에 피가 맺힐 뿐이다. 그녀, 이번엔 눈을 질끈 감고 얼굴로 포크레인을 들이박는다. 콧뻘까 깎일 뿐이다. (중략) 몇 발짝 떨어져서 힘껏 달려들고 다시 몇 발짝 떨어져서 더 힘껏 달려든다. 포크레인은 꿈쩍도 안한다. 그녀의 저항으로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바이올렛』, 272면)

인용문은 오산이의 상실감이 저항으로 변화하면서 포크레인 즉, 남성문명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포크레인은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오산이의 바이올렛을 앗아갔듯이 여신인 대지를 폭행하는 상징물이다. 이 거대한 문명물

에 자신의 온몸을 부딪히는 주인공의 저항은 결국 그곳을 그녀의 ‘무덤’(274면)으로 만들었다. 이 무덤, 오산이의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몸져 누워서 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간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어머니의 몸이 불치라는 사실은 모성성의 훼손을 상징한다.

(3) 낙원 공간의 차이 문화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공간, 즉 낙원의 세계는 농원 주인이 생활하는 농원과 화원을 가리킨다. 이곳은 여성성이 서서히 고사되는 오산이의 생모와 대조적인 장소이다. 농원 주인에게서 생성되는 타자윤리와 차이윤리에 의해 생명들이 번성하는 낙원의 이미지를 띤 공간이다.

농원 주인남자는 완전히 농부가 되어 있다.

화원에서 볼 때와는 다른 인상이다. 흰 셔츠를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헐렁한 바지는 무릎까지 접혀 있다. 그 아래 드러난 종아리는 햇볕에 그을려 인도네시아 여자 해니의 얼굴처럼 다갈색이다. 밤낮으로 여기저기를 걸어다녔을 다리는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 있어 건강해 보인다. 농원에 들어섰을 때 천변을 향해 푸른 잎사귀를 찰랑거리고 서 있던 가지마루의 싱싱한 모습처럼. (『바이올렛』, 128면)

수애와 함께 처음으로 농원을 찾아간 오산이에게 그곳의 세계는 새로운 곳이면서도 옛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장소가 된다. 농원에 처음 뿌리를 내리는 인도네시아의 가지마루라든가, 파파야 야자수 등은 모두 삼촌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있다. 먼 이국에서 건너온 식물이지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 바로 삼촌의 보살핌 때문이다. 수애 삼촌의 보살핌에는 차이윤리가 동반되어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들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그 나무의 특성, 즉 그 나무의 ‘차이’를 알고 그에 합당한 돌봄을 했기 때문이다. 삼촌의 이런 태도는 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비롯하여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포함되어 있다.

차이윤리는 차이윤리의 주체인 ‘개체로서의 자아’가 독립된 개체로 분화된 이후, 다른 독립된 개체들 즉 타자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윤리이다.²⁹⁾ 수에 삼촌의 경우는 성숙한 인격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타자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타자에게는 차이와 동등함이라는 양가적 감정이 결합된다. 타자는 그가 다른 문화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기도 하다.³⁰⁾ 농원주인의 외양 묘사에서 ‘인도네시아 여자 해니의 얼굴처럼 다갈색’이라는 표현은 차별이 아닌 차이만이 존재하는 낙원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그녀만 제외하고 농원 사람들은 말이 아닌 느낌으로 소통하는 법을 체득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 오가지 않는데도 간혹 웃음소리가 나고 나뭇이 하던 일을 놓고 농원 주인남자 곁으로 갔다오기도 한다. (『바이올렛』, 141면)

농원 사람들의 소통은 농원 주인의 타자윤리와 차이윤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윤리는 주체와 타자의 위치를 무화시키면서 각자가 지니고 있을 ‘타자’ 지표를 넘어서는 소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농원 주인은 자신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돌본 타자로부터 그도 돌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산이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글쓰기였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출판사의 오퍼레이터가 되려 했고, 길다란 방의 미니냉장고를 책상 삼아서 필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소통회로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농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진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그녀가 포크레인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취한 행위가 노트에 무엇인가를 끄적이는 모습이다. 이

29) 최성식, 앞의 논문, 334면.

30) 최성환, 『다문화주의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2009), 142면.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소통세계를 지향했던 ‘차별’ 속에 놓여진 여성의 간절한 행위가 된다.

신경숙이 구체적인 공간지형을 그려내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작품의 주요 공간이 되는 화원과 농원은 상호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작품은 신경숙에게 도시의 ‘공간지리학’³¹⁾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정도로 거리와 공간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화원 근처, 농원 근처의 사소한 가게들 상호들마저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작품 성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장소인 화원과 농원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름은 바로 정체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부재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산이에게는 이 농원이 견고한 안식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과 소통하는 회로를 그녀 스스로 차단하기도 하고, 소통의 회로가 너무 늦게 열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신경숙의 장편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토대로 하여 에코페미니즘적 성향이 어떻게 형성화되었으며 이것은 다문화시대의 윤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생태의식’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생활양식이 생명있는 모든 것으로 확대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와해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남/녀, 이성/감성, 자연/문화, 백인/유색인종 등의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되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념과도 상동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문화시대의 문학과 생태의식의 공유지점이 발생한다. 다문화시대가 추구하는 조화로운 삶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탈피해야 가능해진다. 또한, ‘차별’이 아닌 ‘차이’의 존중을

31) 신수정, 앞의 글, 289면.

실천할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특성은 신경숙의 에코페미니즘적 소설에서 형상화되어 있다.

신경숙의 소설에는 여성 억압이라든가, 가부장제의 억압이 미약하게 드러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때로 그의 소설은 자본주의 하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 그의 작품에서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 않은 부성애를 드러내면서 자식(딸인 경우가 대부분임)에게 그리움의 대상, 연민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은 여성주체의 특성만이 아니라 남성주체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남녀의 관계를 가부장제도의 지배와 억압의 논리로 이해하려는 기존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성의 원리를 남녀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 신경숙의 소설은 에코페미니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할 것이다.

신경숙에게 ‘돌봄’의 대상은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 볼 때 매우 넓게 열려 있다. 개, 고양이, 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그에게 ‘타자’를 인정하는 윤리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대지를 숭상하고, 그 대지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 대지윤리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자와 소통하려는 태도는 차이윤리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윤리들은 다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타자윤리, 대지윤리, 차이윤리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로 겹쳐지는 부분도 상당하여 논의에 중복적인 면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는 대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생태의식이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문화시대의 윤리로 수용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작중인물의 ‘돌봄’의 태도는 다문화 시대의 ‘타자윤리’와 관계있으며, 생명존중은 작가에게 심화되어 있는 ‘대지윤리’에 대한 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인 문명세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소통을 지향하는 ‘차이의 윤리’를 드러내

고 있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인 주제는 각자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애매모호하게 겹치거나 넘나드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겹침과 넘나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에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경숙, 『깊은 슬픔』, 문학동네, 1994.
 _____, 『외딴방』, 문학동네, 1995.
 _____,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문학과 지성사, 1999.
 _____, 『바이올렛』, 문학동네, 2001.
 _____, 『리진』, 문학동네, 2007.
 _____,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_____,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문학동네, 2010.

2. 2차 자료

김미영, 『《리진》에 나타난 동아시아 근대의 다문화적 체형』, 『한국언어문화』 Vol.45, 2011.
 _____, 『신경숙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와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 2011.9.
 김용민, 『생태문학 - 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97~99면.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원중, 『대지윤리의 안과 밖 :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 신문수 역음,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42~143면.
 김화영, 『태생지에서 빈 집으로 가는 흰 새』, 『문학동네』, 1998년 봄호.
 문순홍, 『생태여성론의 이론적 분화과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여성과 사회』 Vol.7, 1996, 35면.
 신수정, 『다시, 쓰여지는 이야기』, 『바이올렛』 해설, 문학동네, 2010, 294면.
 윤혜진, 『알도 레오폴드 '대지윤리'의 철학적 기초』, 『범한철학』 제46집, 2007, 가을, 2009, 195~196면.
 이재복, 『신경숙 소설의 미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21집, 2002.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 -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이승준,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학적 쟁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최성환, 『다문화주의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 2009, 142면.
 최성식, 『동질윤리』를 넘어 '차이윤리'로, 『철학연구』 제106집, 2008.5.
 최인자, 『다문화 시대, 서사문화교육의 방향』, 『서사문화교육의 전망과 실천』, 역락, 2008, 38면.
 최인자,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 제22호, 2009, 289면.
 황국명, 『90년대 소설론, 그 치욕과 영광』, 『삶의 진실과 소설의 방법』, 문학동네, 2001.
 황중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옮김, 민음사, 1990.
 애드워드 램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 논형, 2005.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3, 161면.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역, 대운, 1995.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 2010.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 한울, 2007, 114면.

Eco-Feminism Writing and Multicultural Era Ethics in Shin Gyeong-suk's novels

Kim, M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Shin Gyeong-suk's eco-feminist disposition in her novels and writing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study particularly aimed to explore the ethics of the multicultural era in her eco-feminism works containing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er novels like her short stories, her ecological imagination is described to orient itself toward the world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ternity through the act of “caring,” attitude of respect for life, and the space of farm opposite to the violent world of civilization. The study reviewed her *Deep Sorrow* (1994), *The Violet* (2001), *Lee Jin* (2007), *Please Look After Mom* (2008), and *The Phone Rings for Me Somewhere* (2010). In those works, “caring” shows the ethics of others in the multicultural era, respect for life shows the ethics of earth, and orientation toward the world of communication shows ethics of difference. Shin's eco-feminism writing stems from her reflection upon community life and can be embraced as ethics of the multicultural era.

Key Words : Multicultural Era, Eco-Feminism Writing, ecological consciousness, Shin Gyeong-suk's novels, communication, caring, ethics of others, ethics of earth, ethics of difference.

* Hanyang University

